몸부림쳐야 겨우 할 수 있는 감사

(시편 50:1~23)

7.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몸부림쳐야 겨우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몸부림쳐야 겨우 할 수 있는 감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느냐를 문제시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면 감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상황이나 조건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말하자면 감사할 상황이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선택적이거나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선택적인 감사를 하려는 성향을 가진 우리는 몸부림치는 싸움을 통해서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신앙고백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감사를 위해 싸우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감사만으로 생각한다면

몸부림친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삶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에 대한 추구가 아닌 감사 자체를 성취해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싸워야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던 레위인 아삽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하나님과 선민이 언약관계로 맺어졌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독특하게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조항이 아닌 제사를 통하여 언약의 내용이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언약을 잘 지켜나감으로서 선민은 선민다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곧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거나 드려져도 본래의 취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과 선민과의 언약은 깨어집니다.
저자는 다윗 시대의 인물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황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벌써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언약의 핵심인 제사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언약의 내용인 제사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8절을 보면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삽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가 잘못되었지만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는 말씀은 상번제를 뜻합니다. 번제단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어린양 한 마리가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함이며 또한 개개인을 위함이었습니다. 상번제의 본래 의미는 번제에서 죽는 어린 양을 내가 죽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횟수를 나무라시거나, 제물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11절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을 더 바치거나 덜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설령 배고픔을 느끼시더라도 선민들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질된 제사를 통해 가지는 마음가짐이 잘못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늘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제사는 내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물에 욕심을 내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때에 제물을 뇌물로 바꾸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방종교에서는 당연히 제물은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받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도 뱃사람들이 용왕에게 바치는 뇌물의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의 헌물과 예물은 신에게 바치는 뇌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신앙인들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충성 봉사도 뇌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물이 아닌 참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14~15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성가대장 아삽의 신학적 영적 통찰력이 번뜩이는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등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마음에는 감사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언뜻 보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마음과 죄책이나 죄의식이 있어야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아주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뇌물로 바꿔버리는 마음가짐의 정반대의 마음상태입니다. 뇌물은 곧 내 욕구와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의도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감사는 지금 주어진 삶과 환경을 고스란히 수용함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점 만큼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전략적이고 설득적이고 외교적인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반드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 전제조건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반면에 뇌물을 동원하는 마음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뇌물을 동원하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얻고 싶고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건과 환경에 대한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욕구가 발동되고 구체적인 소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꼭 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제물은 뇌물로 왜곡되고 제사의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삽의 통찰력을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죄로 찌든 나를 발견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를 아삽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이는 것이 번제가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모든 제사의 기본 주제가 되고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사는 감사를 유

지하고 감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22~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이기에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를 드린다고 거꾸로 생각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 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한 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나 몸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돈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먼저 마음에 끌어들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위는 뇌물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 고쳐달라는 요구는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몸에 병이 났어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닥쳐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환난이 닥쳐온 순간 그것을 먼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었다면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향해서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행위가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감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14~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에 다 감사가 걸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는 표면적 의

미보다는 감사와 연관 지을 때에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으며 수용하고 감사를 드린다면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것뿐이니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라는 기도밖에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문제없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 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를 생각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의 절정을 이룹니다.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환난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환난을 제거해 주신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 주석가들의 이해조차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다른 종교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신앙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에는 감사가 걸려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선민의 과제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면 감사의 마음을 찾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에 감사의 마음을 찾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바탕 씨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면 인지상정으로 마음이 그것에 휩싸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문제에 개입하게 하려는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하 20장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온 국민이 성전에 모여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는 가운데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가대를 앞세워 적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보다 앞선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왕부터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 도달한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낸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적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예루살렘이 휩쓸리

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들은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모여 금식을 하는 동안에도 상번제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짓눌리고 환난에 먹혀버린 마음을 상번제를 통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듯이 금식하는 동안 계속해서 어린양의 죽음을 보며 환난이 들어온 두려운 마음을 죽은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몸부림치며 싸운 결과 드디어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찾아졌습니다.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번제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친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사랑에 마음이 푹 젖어서 적군들을 바라보자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적군이 진격해올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만난 마음에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개진해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고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제는 감사 찾기입니다.
세상에 휩쓸린 마음이 성전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번제는 환난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나를 죽이면서 기어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환난과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싸여도, 내 몸이 암에 걸렸어도,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진다면 환난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없는 마음을 죽이는 것이 번제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죄스러워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 바탕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귀한 제사를 뇌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들어온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라도 그 마음에 세상이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관계가 깨어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찾고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몸부림치면서 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만 찾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싸워서 기어코 감사를 쟁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싸우면서 상황과는 무관한 절대 감사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